

원 저

치기공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권은자[†], 최에스터, 김선미

해전대학교 치기공과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stress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Eun-Ja Kwon[†], Esther Choi, Sun-Mee Kim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Hyejeon College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sense of self-esteem on college life stress, we conduc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270 dental technology students. conducted a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p < .05$). The average score in major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at 3.6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self-estee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p < .05$). The average score in self-esteem question was relatively high at 3.7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vel of college life stre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p < .05$). The average score for each college life stress area was relatively low at 1.97.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steem, college life str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with major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s a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on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stress, the variable that most influenced college life stress was found to be the self-esteem factor.

Key Words: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Received: November 2, 2023 **Revised:** November 21, 2023 **Accepted after revision:** December 4, 2023

†Correspondence to Eun-Ja Kw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Hyejeon College, 19 Daehak 1-gil, Hongseong-eup, Hongseong 32244, Korea

Tel: +82-41-630-5285, **Fax:** +82-41-630-5323, **E-mail:** rnjs2804@hj.ac.kr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 사고 과정 및 육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 상태로써, 개인과 조직 등의 시스템 균형이 깨진 상태이며(Lee, 2018),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나 불쾌한 신체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Kim, 2021).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혼란이 개개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항상성 유지가 위협받을 때, 이러한 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험하는 상태이다(Kang and Lee, 2021).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의 회상 등을 의미하는 내적 혼란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툼, 외로움, 대인관계, 낮은 성취 등과 같은 생활스트레스 등의 외적 혼란으로 구분된다(Chon and Kim, 1991). 또한, 스트레스는 그 원인과 반응의 차이를 기본으로 중대스트레스와 생활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중대스트레스는 개인이 삶에서 질병, 죽음 등과 같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반면에 생활스트레스는 개인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 진로, 재정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대스트레스보다 강력하고 순간적으로 닥치는 정신적 충격은 덜할 수 있으나 일상에서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Lee, 2019).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의 대학 내에서 학업, 경제적 상황, 진로, 대인관계, 가치관 문제 등의 다양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Kang, 2018).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생들

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한 전공,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 대한 만족과 주변 평가에 의한 판단과정의 산물이며(Kim and Ha, 2000), 본인이 속한 학과 및 전공이 자신이 설정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할수록 전공만족도는 높아진다(Ha, 2000). 대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했던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학교 및 선택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면서 대학생활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Jeon et al, 2001), 특히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흥미 및 적성에 대한 일치 여부가 대학생활 및 전공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oo, 2012).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 전공에 대해 적성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전공 학과에 대한 불만족 시, 전공 교육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Jeon, 2017),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취업 이후 직장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Shin and Park, 2017)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건강한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며,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다(Choi and Eum, 201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 사랑, 존경, 돌봄 등을 보장받을 때 높아진다(Sung, 2008).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취감이 높아지고 학업성취 정도가 높은 학생은 전공학문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게 되며(Yang and Lee, 2012),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과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활 적응을 더욱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and Kim, 2013).

현재까지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일부

대학생이나 특정 학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기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 다양한 투입요인들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대학생활에서의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와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강원·충남·충북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치기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75부의 설문지 중 미흡하고 불충분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지를 제외한 27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 답변의 신뢰도를 위하여 설문에 대해 사전 설명 후 직접 배부·회수하거나, 각 대학 담당교수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Song(2014), Kim(2021)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관련된 자료들을 참조하여 치기공과 학생들에게 맞게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측정도구

설문 문항은 성별, 학년, 학과 선택 동기, 학과 만족도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설문문항은 Song(2014)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전공학과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6문항,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5문항, 전공학과 학문의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인 일반만족 7문항, 교수-학생 간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 4문항 등 4개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신뢰도계수 값은 0.952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설문 문항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긍정형 5문항, 부정형 5문항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신뢰도계수 값은 0.912로 나타났다.

4) 대학생활 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 문항은 Kim(2021)이 사용한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장래 문제 8문항, 학업 문제 7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경제 문제 7문항, 가족 문제 6문항, 동성친구 문제 5문항, 이성친구 문제 6문항, 교수 문제 6문항 등 8개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신뢰도계수 값은 0.94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및 통계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수준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검정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 다중 범위 검정을 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영역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연구대상자 전체 270명 중 여학생이 140명(51.85%)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24명(45.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 91명(33.7%), 2학년(20.37%) 순이었다. 치기공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가 100명(37.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의 권유'로 88명(32.96%), '취미와 적

성이 맞아서' 48명(17.78%), '성적에 맞아서' 20명(7.41%), 기타 14명(5.19%)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만족도는 만족이 184명(68.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 63명(23.33%), 보통 11명(4.07%), 불만족 9명(3.33%), 매우 불만족 3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2.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영역별 분석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된 결과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평균은 관계만족 영역 $3.94 \pm .76$, 교과만족 영역 $3.87 \pm .67$, 일반만족 영역 $3.56 \pm .74$, 인식만족 영역 $3.43 \pm .70$ 으로 분석되었고, 전공만족도 전체평균은 $3.68 \pm .61$ 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전체평균은 $3.75 \pm .73$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영역별 평균은 학업문제 $2.87 \pm .68$, 가치관문제 $2.36 \pm .82$, 장애문제 $2.32 \pm .8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7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0	48.15
	Female	140	51.85
Grade	Freshman	124	45.93
	Sophomore	55	20.37
	Senior	91	33.7
	Others	14	5.19
Major choice motivation	Hobbies and aptitudes	48	17.78
	Peripheral solicitation	88	32.59
	Matches grade	20	7.41
	Advantageous for employment	100	37.04
	Others	14	5.19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3	1.11
	Dissatisfied	9	3.33
	Commonly	11	68.15
	Satisfied	184	23.33
	Very satisfied	63	4.07

Values were presented as N or %.

경제문제 1.86±.81, 이성친구관계 1.68±.72, 교수와의 관계 1.55±.70, 가족관계 1.49±.70, 동성친구관계 1.46±.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 전체평균은 1.97로 나타났다.

Table 2.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college life stress of the level (N=270)

Classification	M	SD
Major satisfaction	3.68	.61
General satisfaction	3.56	.74
Curriculum satisfaction	3.87	.67
Relationship satisfaction	3.94	.76
Recognition satisfaction	3.43	.70
Self-esteem	3.75	.73
College life stress	1.97	.50
Study problem	2.87	.68
Economic problem	1.86	.81
Future problem	2.32	.82
Value problem	2.36	.82
Different gender problem	1.68	.72
Friends problem	1.46	.72
Family problem	1.49	.70
Professor problem	1.55	.7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7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DMR
Gender	Male	3.71	.63	.733	.464	
	Female	3.66	.59			
Grade	Freshman	3.59	.62	2.945	.054	
	Sophomore	3.79	.60			
	Senior	3.75	.58			
Major choice motivation	Hobbies and aptitudes	3.84	.72	1.768	.136	
	Peripheral solicitation	3.59	.58			
	Matches grade	3.54	.50			
	Advantageous for employment	3.72	.59			
	Others	3.61	.57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2.47	.34	24.246	.001***	A
	Dissatisfied	3.07	.50			
	Commonly	3.47	.61			
	Satisfied	3.57	.48			
	Very satisfied	4.19	.63			

*** $p < .001$.

Values were presented as arithmetic M, SD for each score, p -values were calculated by student's t -test or one-way ANOVA,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차이검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매우 만족 4.19, 만족 3.57, 보통 3.47, 불만족 3.07, 매우 불만족 2.47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 그룹, 만족, 보통, 불만족 그룹과 매우 만족 그룹의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학년 항목은 3학년 3.88, 2학년 3.84, 1학년 3.62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 그룹과 3학년 그룹 간 차이가 있었으며, 2학년 그룹은 중간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어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과 만족도 항목은 매우 만족 4.12, 만족 3.66, 불만족 3.62, 매우 불만족 3.50, 보통 3.35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만족도

가 보통인 그룹과 매우 만족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그룹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Difference of self-esteem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7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DMR
Gender	Male	3.70	.79	1.126	.261	
	Female	3.80	.68			
Grade	Freshman	3.62	.70	3.881	.022*	A
	Sophomore	3.84	.70			AB
	Senior	3.88	.77			B
Major choice motivation	Hobbies and aptitudes	3.91	.75	1.937	.105	
	Peripheral solicitation	3.59	.75			
	Matches grade	3.73	.89			
	Advantageous for employment	3.81	.69			
	Others	3.86	.58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3.50	.87	6.119	.001***	AB
	Dissatisfied	3.62	.57			AB
	Commonly	3.35	1.08			A
	Satisfied	3.66	.69			AB
	Very satisfied	4.12	.69			B

* $p < .05$, *** $p < .001$.

Values were presented as arithmetic M, SD for each score, p -values were calculated by student's t -test or one-way ANOVA,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Difference of college life str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7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DMR
Gender	Male	1.93	.50	1.468	.143	
	Female	2.02	.50			
Grade	Freshman	2.02	.50	1.547	.215	
	Sophomore	1.88	.45			
	Senior	1.96	.53			
Major choice motivation	Hobbies and aptitudes	1.87	.43	1.011	.402	
	Peripheral solicitation	2.02	.50			
	Matches grade	2.09	.49			
	Advantageous for employment	1.95	.53			
	Others	2.05	.56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2.29	.45	7.740	.001***	B
	Dissatisfied	2.30	.50			B
	Commonly	2.26	.52			AB
	Satisfied	2.03	.50			A
	Very satisfied	1.71	.39			A

*** $p < .001$.

Values were presented as arithmetic M, SD for each score, p -values were calculated by student's t -test or one-way ANOVA,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불만족 2.30, 매우 불만족 2.29, 보통 2.26, 만족 2.03, 매우 만족 1.17 순으로 나타나,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룹과 만족, 매우 만족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전체 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N=270)

Area	College life stress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stress	1		
Self-esteem	-.558**	1	
Major satisfaction	-.482**	.482**	1

** $p < .01$.

Table 7.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stress (N=270)

Classification	B	SE	β	t	p
(Constant)	3.937	.166		23.760	.000
Self-esteem	-.292	.038	-.426	-7.581	.001***
General satisfaction	-.036	.049	-.053	-.734	.464
Curriculum satisfaction	-.078	.060	-.104	-1.289	.199
Relationship satisfaction	-.073	.050	-.109	-1.448	.149
Recognition satisfaction	-.045	.050	-.063	-.904	.367

F=36.398, $p = .001$ ***, $R^2 = .454$, Durbin-Watson=2.116

*** $p < .001$.

B: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β :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r = -.482$, $p < .01$). 또한,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전체 영역 간에도 유의한 수준의 높은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나($r = -.558$, $p < .01$),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회귀분석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오차항 간 독립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정을 위해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2.116으로 2의 근접값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요인($\beta = -.426$, $p < .001$)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모든 영역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투입된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45.4%로 나타났다.

IV. 고찰

대학생은 청소년기 후기로 자기정체성 확립과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도기로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삶의 목표를 탐색하고 설정

하는 시기이다(Jang, 2015).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적응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2012).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요인은 진로 및 학업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취업, 대인관계 전반에서의 갈등, 가치관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Jang, 2015),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지나친 스트레스는 근심, 무력감, 무가치함, 침울함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유발하고 학업성취, 학교적응, 자신감,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그러나 치기공과 학생 대상의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변인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치기공과 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대 점검하고,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요인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강원·충남·충북지역의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전공만족도 요인 중 관계만족 영역 3.94, 교과만족 영역 3.87, 일반만족 영역 3.56, 인식만족 영역 3.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3.68이었다. 이는 Nam(2023)의 관계만족 3.97, 교과만족 3.92, 일반만족 3.57, 인식만족 영역 3.43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Choi and Kang(2022)의 관계교과만족 3.72, 학과만족 3.53, 인식만족 3.41, 전체평균 3.56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또한 Kang and Lee(2021)의 치위생과 학생 대상 연구결과인 인식만족 3.74, 교과과정 만족 3.68, 관계만족 3.65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직업의 사회적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인식만족 영역에서는 치위생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치기공과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 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치기공과에 대한 자긍심,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만족은 낮게 나타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과기공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치과기공사로서 직업에 대한 신념 및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년,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3.75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 대상 연구 Kang and Lee(2021)의 3.59, Lee(2019)의 3.53, 간호학과 학생 대상 Yang and Lee(2012)의 3.40, Kim and Kang(2020)의 3.51, 일반전공 대학생 대상 Kim(2021)의 3.55, Kim and Jeon(2013) 3.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며 자기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써(Lee, 2019), 치과기공사 직업은 전문가라는 이미지 특성과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므로 평생 전문직업으로 치과기공사를 선택한다고 생각된다. 치기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함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학업문제 2.87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동성친구관계 문제 1.46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평균은 1.97로 나타났다. Kang(2018)의 연구에서도 학업문제가 2.17로 가장 높았고, 친구관계 문제가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Kim(2021)의 일반전공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장래문제 2.98, 학업문제 2.7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37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장래문제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일반전공 대학생은 치기공공사라는 전문 직업으로 취업이 용이하여 장래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를 덜 받는 치기공과 학생 대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감소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학교 및 학과 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일부 지역 치기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자를 전국의 치기공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기공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치기공과 재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만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전공만족도 전체평균은 3.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인식만족 영역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년,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자아존중감 정도 문항 평균은 3.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과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대학생활 스트레스 영역별 전체평균은 1.9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4.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전체 간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5.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검정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5.4%로 나타났다.

VI. 참고문헌

- Choi B, Kang W. The effects of the motive to choose major, career values, and satisfaction with major on immersion in major by the dental technology students: focus on the students at Daegu districts. *J Tech Dent* 2022;44(2):60-6.
- Choi YJ, Eum YJ.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mediated effect of separation-individuation and self-identity. *Korean J Couns* 2016;17(6):357-79.
- Chon KK, Kim KH. 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n J Clin Psychol* 1991;10(1):137-58.
-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Jang D. The medi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 Hanyang University; 2015.
- Jeon E, Chang E, Lee KH. Satisfaction factors for a clothing and textiles major: a modeling. *J Korean Soc Cloth Text* 2001;25(9):1614-20.
- Jeon H.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KAIS* 2017;18(12):213-21.
- Jeon MK, Kim 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 Digit Converg* 2013;11(4):293-302.
- Kang H.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8.
- Kang YJ, Lee JY.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2021;21(1):352-62.
- Kim BH.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elf-respect on university life [dissertation]. Gwangju: Songwon University; 2021.
- Kim J.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Couns* 2000;1(1):7-20.
- Kim KN, Kang EH.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KAIS* 2020;21(3):80-8.
- Kim SO, Jeon YJ.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 Hum Ecol* 2013;22(4):539-58.
- Lee HJ.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stress on his/her campus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of social support [dissertation]. Daejeon: Hannam University; 2018.
- Lee SL. Convergence relationship of self-esteem, empath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Converg Soc* 2019;10(7):87-92.
- Nam S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identity among students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JLCCI* 2023;23(3):589-98.
- Shin HJ, Park HJ.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LCCI* 2017;17(22):643-64.
- Song YJ.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4.
- Sung MH.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2008;22(1):84-96.
- Woo SH.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2012.
- Yang YO, Lee SO.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 Korean Data Anal Soc* 2012;14(2B):979-89.